



국토정보 데이터를 역사정보서비스로 '가치를 높히다'



융·복합 시작을 위한

국토지리정보원

국사편찬위원회

서울대
규장각한국학연구원

〈지도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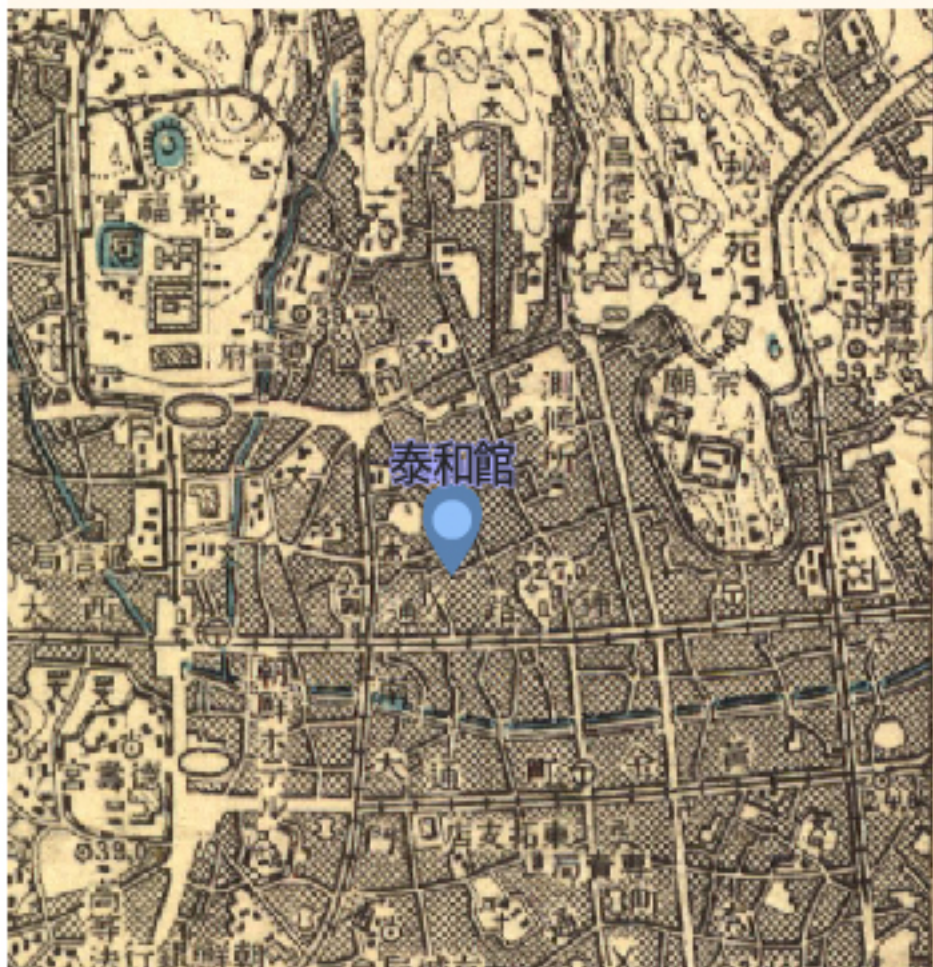


국토교통부
국토지리정보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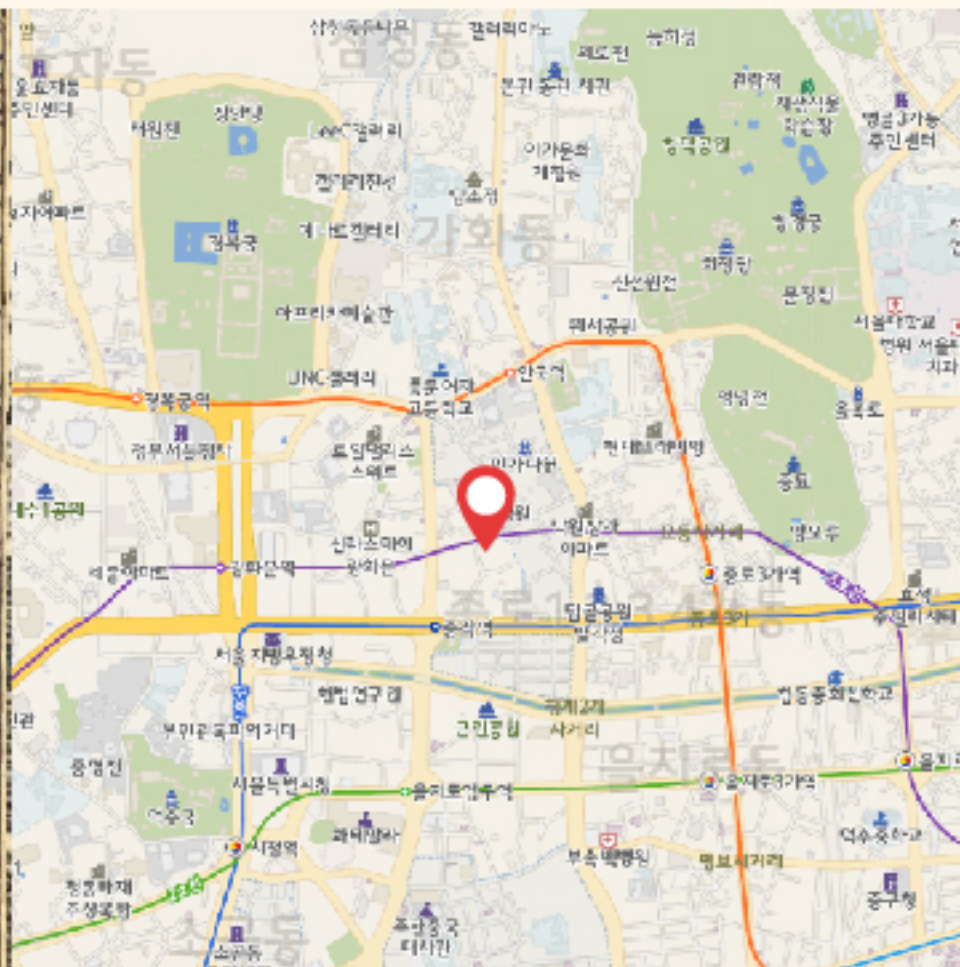


이번 업무협약을 통해
인문지리정보 서비스, 역사지리정보 서비스,
고지도 디지털지도 서비스를 공동 활용하며
고품질의 지도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됩니다

3월 1일 경성 명월관 지점(태화관)에서 독립 선언



(출처: 국사편찬위원회)



(출처: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)

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**“국토정보 플랫폼”**을 통해
3.1운동 당시 경성에 대한 지리정보 등
역사적 지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



대동여지도(1861년)(출처: 서울대학교 규장각)



현재의 서울 지도(2020년)(출처: 국토지리정보원, 국토정보플랫폼)

또한 **현재 지도와 대동여지도**를 비교하여
과거 생활상이나, 조선 후기의
전국 호구 총수(가구수), 도로, 지명 등의
정보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.

지도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은
국민 누구나 과거와 현대, 역사지리정보를
국토지리정보원 “국토정보 플랫폼”을 통해
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／
**미래를 여는 지도정보,
국토지리정보원이 함께 합니다**

